

주부단체에서의 폐자원 재활용 및 재생 활동

녹색소비문화의 정착과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녹색재활용은행

윤 경 설(녹색어머니회 중앙회장)

1. 들어가며

사단법인 녹색어머니회 중앙회(이하 (사)녹색어머니회)가 7년 전부터 해마다 백화점 문화홀을 대여하여 일주일동안 재활용 바자회를 열었으며,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든 매년 처음으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아이들의 옷 물려주기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운동은 재활용과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채 성숙되지 못한 시기부터 자원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지금의 녹색재활용은행의 모태가 되는 것이었다. 또한 이 운동은 어린 학생들은 작아서 못 입는 옷을 물려주고, 서로 자신의 몸에 맞는 것으로 바꿔입기도 하고, 책가방, 신발, 제복 등을 서로 물려주면서 자원을 절약하고, 아끼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배우고, 체험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도록 한 생활실천 녹색재활용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소비유형과 남이 쓰는 물건은 낡고, 문제가 있다는 잘못된 편견으로 말미암아 전사회적인 운동으로는 확대되지 못하였다.

1997년부터 시작된 IMF 구제금융의 위기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었으며, 150만 이상의 실직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난국 속에서 각 가정의 소비유형은 어려워진 소득으로 인하여 변화된 소비양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광범위하게 시작되었다. 그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 어려워진 가계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과 이웃을 생각하며 시작한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운동처럼 대안적인 소비양식으로서의 시민운동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¹⁾.

(사)녹색어머니회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

과 이익이 되는 새로운 녹색소비의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재활용은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녹색재활용은행은 지역사회 내에서 녹색소비문화의 정착과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상설장터로써 시작되었다.

녹색재활용은행의 사업의 목적은 「아나바다」운동을 활성화시켜 시민들의 생활문화를 재활용 중심으로 바꾸어 경제적으로 유익하게 만들어 가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소비생활을 유도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아나바다」운동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이며,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까지 발전시키며, 함께 만들어 가는 건전한 지역사회의 생활공동체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직까지 녹색재활용은행이 사업을 실시한 기간이 짧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을 체계 있게 정리하거나 사업의 효과와 성과물 등의 제시는 어려운 것이기에 사업의 의의와 방향, 그리고 앞으로 실시할 사업의 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사)녹색어머니회와 녹색재활용은행

가. 단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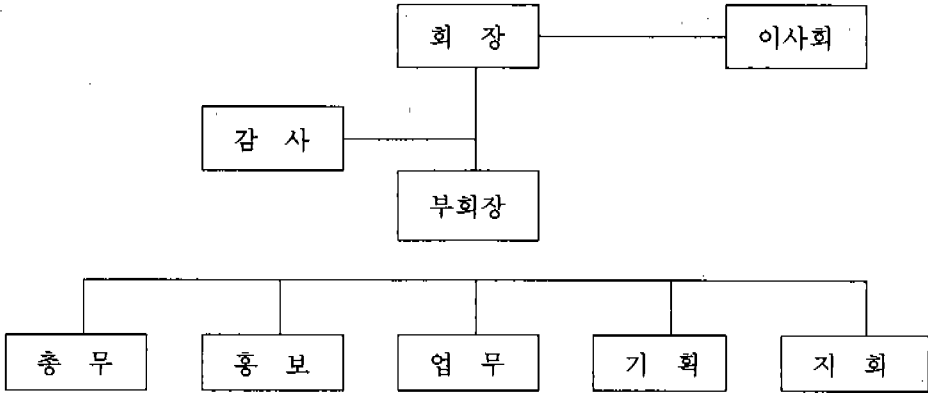
사단법인 녹색어머니회 중앙회는 1993년, 초등학교 앞 교통지도 봉사를 5년에서 10년 이상 활동하여 온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실천하는 환경운동을 전개해 나가며,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시민운동단체이다. (사)녹색어머니회는 순수 자원봉사자로만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총 회원수는 9,000명에 이르는 전국적인 시민단체이다.

나. (사) 녹색어머니회 조직표

(사)녹색어머니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본부가 있으며, 서울에 15개 지회, 전국에 20

-
- 1) 물론 이러한 녹색소비 운동이 IMF한파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한 (사)녹색어머니회의 아이들 옷 물려주기 운동, 서울YMCA의 생활협동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한 파천 알뜰매장 등 다양한 형태로 IMF한파가 있기 이전부터 있었다.

개 지회를 가지고 있다. 본부의 조직구성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이 있으며, 총무, 홍보, 업무담당, 기획, 지회관리 등의 5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1).



(그림 1) (사) 녹색어머니회 조직표

다. 녹색소비운동과 (사)녹색어머니

(사)녹색어머니회는 주방에서부터 생활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실질적인 시민운동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왔다.

(1) 교통안전 활동

- ①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안전 봉사활동
- ② 교통가족 장학금 지급(버스기사 자녀대상)

(2) 자연환경 보전활동

- ① 청계산, 우면산, 데모산 일대에서 나무심기 캠페인
- ② 10만 그루 나무 나누어주기 운동
- ③ 우리 하늘을 살리기 위한 매연 줄이기 시민감시 운동
- ④ 우리 강을 살리기 위한 새강 살리기 시민참여 운동
- ⑤ 양재천, 홍제천 등 하천 폐기물·오물 수거 활동

(3) 환경보전 시민운동

- ① 백화점 환경코너 운영 및 환경상품 판매
- ② 옷, 책가방, 학용품 물려주기 행사
- ③ 가정에서 실천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 ④ 신김치 축제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문화축제 운동

이외에도 시민의식개혁운동, 환경정보 책자발간, 환경의식 모니터링 등과 같이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실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자원의 구매와 사용, 그리고 폐기 등 소비과정에서 자연을 보전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소비생활인 녹색 소비의 정착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녹색재활용은행과 같은 실천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실 녹색소비라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용어가 되었으나,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의미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다(강성진, 1997).

첫째, 지속가능한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이다. 녹색소비는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환경의 능력을 악화시키지 않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말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속가능한 소비는 현재와 같이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계속되는 한 자원의 고갈은 심화될 것이며, 자원이 고갈이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한 미래세대들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소비행위까지도 위협받거나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 세대의 변화된 환경친화적 소비형태를 의미한다.

둘째, 성찰적(반성적) 소비(reflective consumption)이다. 녹색소비는 소비와 행복간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며 이루어진다. 소비는 욕구(need) 충족을 위한 행위이지만, 소비만을 통하여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녹색소비는 인간의 욕구라는 것이 과연 자신의 진정한 필요에서 나온 것인가를 반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자신의 욕구가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상업광고가 부추긴 것은 아닌지, 그래서 아직도 쓸 수 있는 물건도 구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것이 아닌지 하고 말이다. 녹색소비는 소비의 내용과 그것의 기반이 되는 욕구를 보다 친환경적인 것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으로, 소유에 대한 무한한 욕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적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의미를 새기는 실천행위이다.

셋째, 공생적인 소비(reciprocal consumption)이다. 녹색소비는 더불어 사는 지혜에 기반한 것으로 내 무절제한 소비가 누군가의 돌이킬 수 없는 희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즉, 자신의 소비 행위로 인하여 야생동물이 멸종 당하고, 소비과정에서 또 소비 후에 버리는 쓰레기로 인하여 공기와 물과 땅이 오염되어 자연환경이 다시는 회복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양식 있는 소비자들의 자연도 살고, 인간의 욕구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인간만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자연생태계의 모든 생물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모색하는 것이다.

3. (사)녹색어머니회 녹색재활용은행

가. 녹색장터의 시작과 의의

녹색재활용은행은 (사)녹색어머니회에서 관여하는 녹색장터(Green Market)의 명칭이다. 본격적으로 상설화된 녹색소비를 위한 녹색장터는 1996년 3년 과천시민회관내에 개장된 ‘알뜰매장’이 시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이나 샘솟는 집 등과 같이 10년 가까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재활용·교환센터를 상설적으로 운영한 경우는 있지만 녹색소비라기보다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재활이나 선의(善意)의 봉사를 위한 활동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녹색장터의 시초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다 1997년 하반기부터 서울YMCA에서는 서초녹색가게를 시작으로 지역별 녹색가게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사)녹색어머니회, 녹색연합 등에서도 가세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사)녹색어머니회에서는 1992년부터 어린이들의 옷 물려 입기 운동, 책과 가방 물려주기, 신발 물려주기 등의 알뜰장과 백화점 문화홀을 대여하여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 알뜰바자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경험과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녹색재활용은행을 1998년에 개설하게 되었다.

녹색장터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욕구의 해결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으로 바자형식 또는 일회성 행사위주의 알뜰시장 등과는 다르게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함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속에 녹색소비를 이루어내고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으로 자리잡아 가는 등 커다란 사회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나. 녹색재활용은행의 목적과 현황

녹색재활용은행의 사업의 목적은 「아나바다」운동을 활성화시켜 시민들의 생활문화를 재사용 중심으로 바꾸어 경제적으로 유익하게 만들어 가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소비생활을 유도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또한 「아나바다」운동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이며,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까지 발전시키며, 함께 만들어 가는 건전한 지역사회의 생활공동체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녹색소비의 지향은 사실 구호와 형식적인 사업을 탈피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사)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의 의식 속에도 충분한 의지가 담겨져 있었다((사)녹색어머니회중앙회, 1997),

이러한 녹색소비운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성찰적 소비, 공생적 소비를 생활속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하여 (사)녹색어머니회에서는 녹색재활용은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녹색재활용은행은 유치원 아이들로부터 주부들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 모두의 자원재활용과 녹색소비를 위한 산 교육장이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끼리 더욱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녹색재활용은행은 지역주민들의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 교환해 가는 단순한 재활용교환센터의 소극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곳이 아니다. 이 곳은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녹색소비지향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기 위한 어린이 환경교실, 지역주민 환경교실 등을 개설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환경문제와 환경관련 욕구를 발견하고, 이를 수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치구 수준에서 민과 관이 만나 지역사회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해보도록 한다.

다. 녹색재활용은행의 사업방향

녹색재활용은행의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환경과 경제를 생각하는 녹색소비·물물교환의 활성화이다.

둘째는 주민참여와 환경교실을 통한 지역사회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과 이를 통한 민과 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환경문제의 해결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녹색재활용은행을 통하여 환경과 경제를 생각하는 녹색소비문화의 형성

① 물물교환 활성화를 통하여 환경친화적·경제적인 가계생활을 유도한다.

녹색재활용은행은 각 가정에서 멀쩡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물물교환 할 수 있는

상설화된 장(場)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물물교환은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자원의 사용기간을 증가시켜 환경보전과 경제적인 가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② 환경상품 사용 활성화를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하여 기업들이 환경상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창출하였으며, 과대포장을 막는 등 환경제품의 소비를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된다.

(2)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녹색소비교실을 통하여 서로 돕는 생활공동체의 형성

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한다.

성북구 녹색재활용은행을 운영하고 만들어 가는 주체는 단연히 지역사회 주민들이다. 성북구 녹색재활용은행은 시민들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서로 돕는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

② 녹색소비교실을 통한 환경의식을 함양한다.

녹색소비교실은 각 가정에서 꼭 해야 하는 녹색소비 실천에 관한 교양교육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와 지역사회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환경보전 의식과 참여의식을 높여 보다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③ 환경친화적이고, 재미있는 어린이 환경교실을 통한 밝고 건강한 성장을 유도한다.

어린이 환경교실은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재미있고 유익한 환경교실 프로그램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2세들에게 올바르게 건전한 환경의식과 실천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3) 실태조사 및 주민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여론 수렴 및 정책건의

① 녹색소비 실태조사를 통하여 환경관련 시민정보와 여론을 수렴한다.

녹색재활용은행운동은 단순한 센터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시민 녹색소비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은 물론 녹색소비의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민으로부터 환류(feedback)받음으로서 보다 발전적인 실천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② 지역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시민 간담회는 녹색소비를 위하여 시민들의 역할을 모색하고, 특히, 주민과 자치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듦으로써, 지방자치 시대의 보다 성숙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라. 녹색재활용은행의 사업 내용

(1) 소재지 :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 2동 3-686 (☎ 02-918-6682)
- 사업규모 : 80평 규모(종암 2동)이며, 강남구와 영등포구 등 여러 지역으로 확대시킬 예정.

(2) 개점시간

녹색재활용은행은 상설매장으로서 개점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일요일은 휴무이다. 개점시간은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이며, 자원봉사자들은 오전 10시 30분까지 매장으로 나와 물품정리와 개점준비를 하며, 5시부터 6시까지 폐점으로 인한 물건정리와 정산 등을 한다. 다만 별도의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출장하여 임시로 녹색재활용은행을 개장하기도 한다.

(3)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유치원 어린이, 주부, 주변 공사 현장의 인부들, 직장인, 노인 등 누구나 이용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이용인원은 약 50명이다. 이용자들은 오전이 약 10명에서 15명 사이이며, 오후는 30명에서 40명 정도로 오후에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더 많다.

(4) 자원봉사자

녹색재활용은행은 모두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일 평균 자원봉사자 수는 5명으로, 주 약 4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기존의 녹색어머니회원과 지역주민이 3:2 정도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 대표로 구성된 녹색재활용은행 운영위원회가 있어 1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녹색재활용은행의 사업계획, 매장관리, 예산 및 정산 등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5) 매출 규모

일일매출량은 평균 50점 정도이며, 주로 교환되고 있는 물건들은 이용하는 대상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초등학생의 경우 장난감류, 만화나 동화책 등 도서류, 운동기구 등을 주로 찾으며, 젊은 주부의 경우 아기옷이나 장난감류, 작업복 등을 선호한다. 또한 청년층은 청바지, 티셔츠 등 옷가지와 가전제품을 선호하며, 직장인은 책, 책상, 의자, 카세트, 비디오 테이프

등을 선호한다. 중년층은 남자와 여자가 다소 다른데, 남자의 경우 신사복, 구두, 현장 작업복 등을 선호하며, 중년층 주부의 경우 그릇, 신발류, 옷 종류, 가정용품 등을 주로 구입한다. 노인층은 편의복이나 손자녀가 입을 옷 종류, 등산복, 등산화 등을 선호한다.

여기서 발생된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 어린이·지역주민 환경교실의 교육지원비, 녹색재활용은행 자원봉사 운영·관리비, 여론수렴 지역조사비 등과 같이 녹색재활용은행의 사업비와 지역주민의 환경의식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재사용 될 것이다.

(6) 이용방법

녹색재활용은행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깨끗이 손질된 옷, 신발, 가방, 책, 장난감, 기타 생활용품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3점 이상 기증한 경우 녹색재활용은행의 회원이 되며, 「그린카드」를 제공한다.
- ② 그린카드를 소지한 지역주민은 언제든지 진열된 물건을 교환해 갈 수 있으며, 비회원은 1점당 1,000원을 받는다. 이익금의 5%는 녹색기금으로 활용한다.
- ③ 이용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장한다.
- ④ 낡은 물품이나 저저분한 옷 등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받지 않는다.

마. 녹색재활용은행의 사업 진행 과정

녹색재활용은행은 다음과 (그림 2)와 같은 진행과정으로 사업이 실시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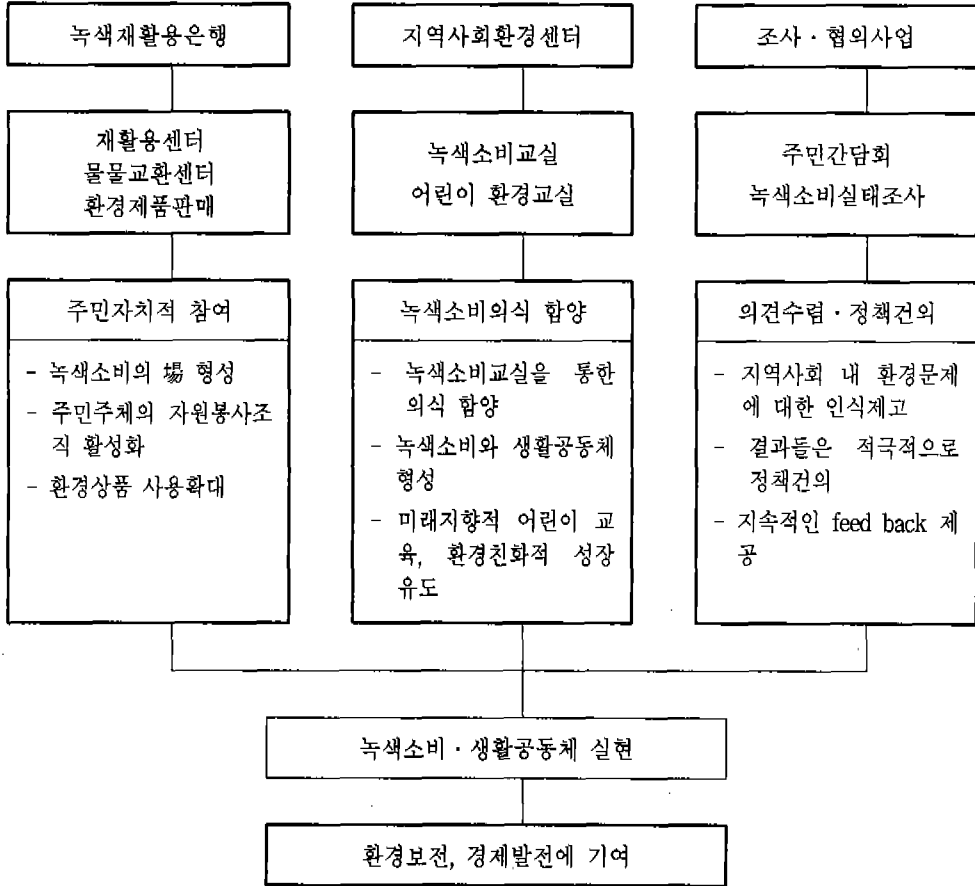
사. 사업내용

녹색재활용은행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재활용은행의 운영

- ① 실시시기 : 상설화하여 운영함.
- ② 대 상 : 주부, 학생, 지역주민, 공무원 등 모든 대상
- ③ 내 용
 - 물물교환 센터 : 도서, 의류, 신발, 유아용품, 주방용품, 잡화, 기타 생활용품으로 사용 가치가 있지만 각 가정에서 쓰지 않고 있는 모든 중고 생활용품을 교환하거나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 재활용 센터 : 가습기, 믹서기, 청소기, 헤어드라이기 등 가정용 가전제품을 위탁

수리,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그림 2) 사업 진행 과정

- 환경상품 판매 : 재생화장지, 재생종이 문구류, 재생비누·세제 등 환경상품을 판매한다. 단, 판매수익금의 5%~10% 정도는 녹색재활용은행과 지역환경사업을 위하여 적립한다.

(2) 녹색소비교실

- ① 실시시기 : 년 2기, 각 기당 10 SESSION 프로그램 실시(강사 미정)
- ② 대 상 : 매 회당 지역주민, 대학생, 공무원, 전문가 등 20명
- ③ 내 용 : 강의와 토론, 환경시설 및 단체 견학 등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녹색재활용은행과 주민참여

- 환경문제의 실태1, 2
- 여성과 환경
- 환경과 자녀를 위한 먹거리(食)
- 지역사회 환경문제 모니터링 1, 2
- 환경시설 및 시민단체 견학(소각장, 환경단체)
-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워크샵

(3) 어린이 환경교실

- ① 실시시기 : 년 2기(방학 활용), 각 기당 8 SESSION 프로그램 실시
- ② 대 상 : 매 기당 초등학생 30명
- ③ 내 용 : 멀티미디어 교재 활용, 실험 및 모니터링, 캠프 등을 통하여 재미있고 친숙한 환경친화적인 인격 형성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어린이를 위한 환경문제 이야기1, 2(멀티미디어 교육)
 - 지역환경오염 모니터링1, 2
 - 지역환경신문 만들기1, 2(모니터링 내용 활용)
 - 신기한 환경비누 만들기
 - 신나는 어린이 환경캠프(2박 3일 시설 견학포함)

(4) 녹색소비 실태조사

- ① 실시시기 : 98년 9월~11월
- ② 대 상 : 지역주민 400명
- ③ 내 용 : 지역주민에 성북구 녹색재활용은행을 홍보하는 동시에 여론수렴의 기능을 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게 된다.
 - 인구·사회학적 특성
 - 녹색소비 생활실태
 - 녹색재활용은행 인식도
 - 환경친화적 생활실천 수준
 - 지역사회내 환경문제 실태 및 인식
 - 녹색재활용은행에의 자원봉사 참여 인식
 - 필요로 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욕구
 - 녹색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5) 지역주민 간담회

- ① 실시시기 : 98년 11월
- ② 대 상 : 녹색재활용은행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환경운동가, 녹색장터 운영자 및
관련자, 대학생, 공무원, 전문가 등
- ③ 내 용 : 98년 1년간의 녹색재활용은행 사업을 평가하는 동시에, 녹색소비 실태조사
를 발표하고, 녹색소비 정착과 생활공동체 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6) 자원봉사 조직 활동

- ① 실시시기 : 수시, 자원봉사 교육은 정기적으로
- ② 대 상 : 녹색재활용은행 자원봉사자
- ③ 내 용 : 녹색재활용은행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를 강화하고, 지
속적인 참여를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 보상체계 등을 확립하고, 자원봉
사자를 모집, 교육하는 관리를 중점에 둔다.
 - 녹색재활용은행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 녹색재활용은행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 녹색재활용은행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 녹색재활용은행 자원봉사자 정기 월례회 및 평가회
 - 녹색재활용은행 자원봉사자 활동 누적시간 표창장 수여, 위로회 등 실시
 - 녹색재활용은행 자원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7) 1998년 평가보고서(Annual Report)

- ① 실시시기 : 1998년 12월~1999년 1월
- ② 대 상 : 녹색재활용은행 모든 사업
- ③ 내 용 : 녹색재활용은행에서 실시한 물물교환 실적, 녹색소비교실, 지역조사, 자원
봉사활동 사례 등을 모아 1998년 평가보고서로 정리하도록 한다. 이를 각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타 기관 녹색장터 등에 배포하여 환류(feedback)받
도록 한다.

4. 나오며

새로운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비의 변화를 요구하였으며, 우리는 능동적으로

다양한 사업들, 특히 녹색재활용은행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채 성숙되지 못한 시민사회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에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친근감 있게 다가서며,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의 개발은 시민단체나 지역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녹색재활용은행과 같은 녹색소비운동은 시민의식의 성숙과 참여를 이루어내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것이 환경보전은 물론 사회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금전으로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녹색재활용은행과 같은 녹색장터들이 더욱 확대되어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실 (사)녹색어머니회의 녹색재활용은행은 시작 된지 얼마 안되었기에 어떤 확실하거나 구체적인 지표나 효과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으며, 어린이 환경교실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주민환경교실을 통하여 명실공히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어나가는 지역사회 환경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리고 거창한 대안이나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녹색재활용은행을 통하여 녹색소비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자원봉사 회원의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희망의 끝맺음을 하고자 한다.

하루는 4~5살 정도 되는 어린이들이 견학을 온다기에 미리 각자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들 중에서 하나씩만 들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장에 비치된 장난감을 보고 달라고 때를 써보는 아이도 있었고,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도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 달래기도 하였고, 하여간 재미있는 일도 많이 일어난답니다. 녹색재활용은행이란 명칭으로 개장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젊은 주부들이 와서는 왜 진작에 이런 좋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고 기분 좋은 핀잔을 하기도 하고, 꼭 필요한 것을 구해달라고 메모를 남겨 놓기도 하는 등 사람들의 호응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곳을 더 많이 만들어 전국 어디서나 주부들이 술선수범 한다면 이 어려운 국난도 곧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문 받으라 물건 수집하라, 헌옷 가지나 닦지 않은 물건을 손질하고, 빨고, 대리고 하는 힘겨운 일들의 연속이지만, 바쁘고 힘들 때면 서로 도와주는 동료 자원봉사자들과 또 자기가 원하던 물건을 구하여 주면 기뻐하는 어린 학생들과 시민들의 모습을 볼 때면 보람을 느낍니다. 의정부, 대전, 인천 등 먼 지방에서 서울에 왔다가 들렀다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녹색재활용은행을 토양여 모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과 IMF시대를 조금이나 빨리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또다시 자동차가 터지도록 물건을 수집하러 나갈 것입니다. 들어온 물건들을 깨끗하게

정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 고 문 헌〉

- 강성진(1997), 녹색소비생활운동의 갈래와 의의,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 97 전국환경활동가 워크샵 보고자료집.
- 서울YMCA 녹색가게운동 사무국(1998), YMCA 녹색가게 운영지침서.
- (사)녹색어머니회 중앙회(1997), 녹색어머니회 회원의 환경의식 및 실천 조사.